

5

월의 사양관리

축산연구소

일반관리

기상이변적인 특이 상황과 같은 갑작스러운 기온상승으로 젖소가 순간적인 고온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산유능력 저하 및 번식을 저하와 같은 커다란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더위에 대비하여 축사 환기시설, 보온 및 운동장에 그늘막 설치 준비를 한다. 개체별 산유량을 점검하고 유사비(유대중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유사비는 낮을 수록 좋다)를 계산해 보고 사료값 등을 고려하여 저능력과 번식장애 및 체세포수가 높은 개체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므로 신속히 도태시키도록 한다.

사양관리

계절적으로 청에사료 급여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겨울내 준비해 먹었던 벧짚이나 건초가 부족한 농가에서는 청에작물(호맥이나 이탈리아라이그라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에 작물을 갑자기 많이 주거나 방목을 오래하면 고창증 및 소화기 장애로 인해 설사를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청에 사료를 급여할 때는 건물섭취량 증대를 위하여 청초보다는 햇볕에 1~2일 말려 수분을 줄여서 충분히 급여하여 산유량 증대를 위한 사양관리를 한다. 청에 급여 및 따뜻한 기후로 우유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므로 산유량이 늘어나고 채식량이 증가하나, 유지율이 떨어지고 젖소가 에너지 섭취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사료급여량을 증가시키는데 그치지 말고 사료 배합비를 다시 검토하여 산유량에 따라 에너지 요구량을 조정해 준다. 기온의 상승과 함께 물 섭취량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깨끗한 물의 적절한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급수원의 물 공급량이 충분한지를 조사하고 물 저장탱크, 수도관의 부식여부 검사 및 수리를 해 준다. 분만과 발정이 많은 계절이므로 분만 예정우와 발정우의 관찰을 오전, 오후 착유 전에 20~30분 정도 실시하여

기록함으로써 분만을 및 번식을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정기적인 구충 및 발굽삭제를 실시하고 소금 및 광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양관리에 유의한다.

방역 및 위생관리

정기적인 축사소독과 축사 출입구에 방역시설을 계속적으로 가동하여 사료운반차나 집유차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또한 분만이 많은 계절이므로 분만우 및 신생 송아지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환경과 어미소로부터 질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병원균보다 먼저 양질의 초유가 체내에 흡수되도록 하여 건강한 송아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전염병 예방백신접종 프로그램은 목장의 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소홀히 하여 목장경영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송아지 및 후보축에게 권장되는 백신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여 접종하도록 한다.

초지 및 사료작물

심어 놓은 호맥 및 연맥을 이용하려는 농가에서는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사일리지를 담글 것인지 건초를 만들어 이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후작으로 옥수수를 파종하려면 옥수수 파종이 늦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파종을 완료하여 수확량을 높인다. 옥수수 및 수단그라스는 파종후 3~5일 이내에 잡초우점을 방제하기 위하여 ha당 라쏘 3,000ml+싸마진 1,000ml를 물 1,200l 에 풀어서 전면 살포한다. 옥수수 추비시에는 옥수수 앞에 이슬이나 물기가 없을 때 포기에서 10~15cm 떨어진 곳에 포기마다 주되 잎이나 성장점에 비료가 닿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멸강나방 방제를 위하여 예찰을 철저히 하여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